

잠 못 드는 밤 시작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손흥민(한국), 에밀 포르스베리(스웨덴), 네이마르(브라질), 메시(아르헨티나), 호날두(포르투갈).

/연합뉴스

F조 2018 러시아월드컵 전력분석

1. 예선 성적 2. 월드컵 진출 횟수 3. 최고 성적 4. 최근 성적 5. 주축할 선수 6. 역대 성적 7. 부상 선수 8. FIFA 순위 9. 최근 10년 피파 랭킹

독일	멕시코	스웨덴	한국
1위	15위	24위	57위

독일 (1954, 1974, 1990, 2014)
우승 4회

멕시코 (1970, 1986)
8강

스웨덴 (1994, 2018)
16강

한국 (1998)
8강

독일 (1954, 1974, 1990, 2014)
우승 4회

멕시코 (1970, 1986)
8강

스웨덴 (1994, 2018)
16강

한국 (1998)
8강

독일 (1954, 1974, 1990, 2014)
우승 4회

멕시코 (1970, 1986)
8강

스웨덴 (1994, 2018)
16강

한국 (1998)
8강

독일 (1954, 1974, 1990, 2014)
우승 4회

멕시코 (1970, 1986)
8강

스웨덴 (1994, 2018)
16강

한국 (1998)
8강

우승 후보 독일 2연패냐 브라질 6번째냐 조별리그 빅매치 스페인-포르투갈 B조 1차전 신태용호 첫 상대 스웨덴 잡고 원정 16강 가자

축구팬들의 잠 못 드는 밤이 시작된다. 4년을 기다린 '축구 전쟁'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이 14일 개막해 3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러시아 월드컵은 15일 자정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32개국에 벌이는 축구 전쟁. 독일·브라질·프랑스에 쏠리는 시선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선 티켓을 차지한 32개국은 네 팀씩 8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갖는다. 각 조 1·2위가 16강에 올라 결승을 향한 한편 승부를 벌이게 된다. '축구 전쟁'의 결말은 7월 15일 자정에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 무대에서 마지막 결승전도 치러진다.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전차군단' 독일이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독일은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43골을 터트린 막강 화력과 4실점으로 골대를 틀어막은 철벽 수비로 10전 9승을 이뤘었다. FIFA 랭킹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독일은 누구나 인정하는 막강 우승후보다. 5번째 월드컵 정상을 밟으며 최다 우승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삼바 군단' 브라질도 세계가 주목하는 팀이다. 브라질은 독일과의 설욕전을 꿈꾸고 있다. 4년 전 안방에서 열렸던 월드컵 준결승

에서 1-7 참패를 당하면서 6번째 우승 도전을 마뤄야 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하게 되면 브라질은 최다 우승 부문 타이 기록도 내주게 된다.

유럽 예선 A조 1위로 본선 무대에 오른 프랑스는 '아트 사커'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등이 새로운 황금세대를 이룰 '별'들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챔피언인 스페인도 빠른 패스와 과감한 역습을 앞세워 8년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결승전만큼이나 축구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맞붙는 B조 1차전(16일 오전 3시·소치 피시스트 스타디움)으로,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다.

◇통쾌한 반란을 꿈꾸는 '신태용호' 우여곡절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예선 첫 경기를 분위기 대반전의 무대로 삼고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열 번째 본선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원정 최고 성적을 냈던 한국은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16강에 도전한다.

하지만 16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F조에 속한 한국은 '우승 후보' 독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북유럽의 '복병' 스

한국 조별리그 일정 (한국시간)

6.18(월) 21:00	스웨덴 VS 대한민국
6.24(일) 00:00	대한민국 VS 멕시코
6.27(수) 23:00	대한민국 VS 독일

웨덴과의 전장에서 생존해야 한다. 한국은 18일 오후 9시 스웨덴과 예선 첫 경기를 가진 뒤 24일 자정 멕시코와 2차전을 치른다. 그리고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는 27일 오후 11시에 시작된다.

신 감독은 스웨덴전을 '반란'의 무대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스웨덴은 FIFA 랭킹 24위로 한국(FIFA 랭킹 57위)보다 33계단이 높다.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2무 2패로 뒤져왔다.

북유럽 특유의 높이와 파워가 감점이지만 스피드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첫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2차전에서 만나는 멕시코도 힘겨운 상대다. FIFA 랭킹 15위로 북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에서도 6승 2무 4패로 한국을 압도한다. 또 앞선 여섯 번의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16강에 진출한 전력도 있다.

◇19세 막내부터 45세 최고참까지, 꿈의 무대에 서다 이번 월드컵에는 32개국 73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최연소는 후주의 공격수 다니엘 아르자니(19·펠버른시티FC)로 이란계 호주인인 그는 1999년 1월 4일생이다. 한국 대표팀의 막내는 1998년 1월 6일생인 이승우(20·베로나). 32개국의 1998년 동갑내기 는 모두 9명이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최고령은 이집트의 골키퍼 예삼 알 하다리(45·알타운 FC)로 1973년 1월 15일에 태어났다. 대회 최연소인 아르자니보다 무려 26살이 많다.

골키퍼를 제외한 포지션 중에서는 멕시코 수비수 라파엘 마르케스(39·CF아틀라스)가 최고령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1979년 2월 13일생이다.

팀 전체 평균 나이로는 파나마가 29.6세로 최고령, 나이저리아는 25.9세로 가장 젊다. 한국 평균 나이는 27.8세로 14번째로 젊은 팀으로 꼽힌다. 이는 브라질 월드컵 당시 25.9세보다 2살 가까이 늘었다. 한국 대표팀의 최고령은 막내 이승우보다 12살이 많은 1986년생 이용(전북)이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한국 대표팀의 평균 나이는 늘었지만 이번이 첫 월드컵인 선수들이 많다. 23명의 태극전사 중 기성용(29·스완지시티)만 유일하게 세 번째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최장신은 201cm인 크로아티아 골키퍼 로브레 칼리니치(28·KAA 헨트)다. 최단신은 나란히 165cm인 파나마 미드필더 알베르토 킨데로(31·리마), 사우디아라비아 미드필더 야야 알셰흐리(28·CD레가네스), 스위스 미드필더 세르단 사키리(27·스토크시티)다.

한국 최장신 선수는 196cm인 김신욱(30·전북), 최단신 선수는 170cm인 이승우와 고요한(30·FC서울)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